

마다가스카르 최성수-이경희 선교사 이야기

“ 세상은 허망한 것을 얻기 위해 서두르는 법을 배우나, 너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고요해지는 법을 배워라”

- 두 명의 경청자 중 -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 마가복음 3:35 -



마다가스카르 현지소식

마다가스카르 동남부 지역인 Ifanirea Ikongo 지역에 아사자들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마다 동남부 및 남부 지역 굶주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잠잠하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독감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음.

물가 상승과 기근으로 인해 지방 마을마다 강도(dahalo)떼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말씀 사역 *

1.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최성수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잠이 덜 깬 아이들도 있지만 최성수 선교사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2.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아이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진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4,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4명, 8명 나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4학년 8명, 5학년 15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간식의 힘이 크겠지요!!^^) 무언가를 많이 가르치기 보다는 이 만남을 통해 아이들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클럽활동 *

; 클럽활동은 마다에 계신 타 단체 선교사님들과 협력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리코더반

- 음악적 달란트를 갖고 계신 침례교 파송 정승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의 기초 음악 이론과 리코더를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악기를 처음 만져본 아이들이라 손가락의 움직임은 서툴지만 너무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2. 워십반

- 워십반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댄스는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워십반은 정승 선교사님의 아내인 이미자 선교사님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3. 종이접기, 찬양반

- 지난 학기에 이어 새로운 아이들과 만나 종이접기와 찬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도 각 학교에 캠페인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초등 학교에서도 지난 11월 26일 토요일 4,5학년 아이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공부해야 할 권리와 학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목소리 내어 크게 외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던 도중 한 아저씨께서 “집안이 어려우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하러 보내는 것이 어떠냐” 며 항변했습니다. 우리 나라 또한 어려웠던 시절 아이들을 논,밭, 공장으로 보냈음을 알기에 이 곳 마다도 이 어려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다는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이빨이 안 좋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빨이 썩었을 때, 가장 흔한 치료법은 아픈 이를 그냥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빨을 뽑는 비용이 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조차 없어 아픈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아이들 모두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는 없어서, 그 중에 많이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이를 치료받도록 도왔습니다. 한 두번의 치료만으로도 아파서 늘 찡그리던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 운자띠나 가족과 만남 *

- 장학금 전달 중에 알게 된 운자띠나~ 5명의 형제가 고아가 된 지 채 한 달도 안되었을 무렵, 운자띠나 형제를 보살펴주는 친척집에 방문했습니다.

9개월 된 아기에서 이제 17살이 된 남빈츄까지 5형제가 이미 아이가 셋 있는 친척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8명에 부부까지 총 10명이 사는 집에는 침대 하나에 변변한 살림살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돕고자 큰 형 남빈츄에게 운전을 가르치려고 하니, 아이들 모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학원에 등록 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출생증명서 발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은 안계시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언제나 마다가스카르와 저희 부부를 기억하며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교회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선교사부부가 되도록.
2. 사역지(마이바호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3.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아이들과 더 깊은 만남을 이루도록.
4. 아이들 급식과 학비 지원할 수 있는 마다 현지 사업체를 만날 수 있도록.
5. 새롭게 신축하는 교실 공사(정부지원)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연락처****

이경희선교사-카톡ID: **tsaramada**

최성수선교사-카톡ID: **drewschoi2**

****후원문의****

바울선교회 www.bauri.org/ Tel. 063-254-8418